

김 태 원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읽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영 어 영 문 학 과

김 윤 경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읽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김 태 원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윤 경

인 준 서

김윤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동 문학을 논의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에 대한 성찰의 일환이다. 아동 문학이라는 주변화된 장르 텍스트를 선택하여 서구 문화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용하고, 드러나며 또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20세기 초에 발표되고 영국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어린이 독자에게 읽히고 있는 케네스 그레이엄(Kenneth Grahame)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The Wind in the Willows*)¹⁾은 바로 이런 여성주의적 아동문학 읽기를 위한 훌륭한 텍스트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레이엄이 자신의 장애자 아들을 위해 썼다는 『버드나무』는 어린이를 위한 책의 많은 작가들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게,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방식의 사고양식을 보여준다. “어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아적 성향(*child within*)”이라고 그레이엄 자신이 말한 바 있는 것, 즉 자신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 기억과 사람, 장소, 아동기의 감정을 재현한 어른들의 환상으로서 아동 문학 텍스트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애를 지닌 자식을 향한 극진한 사랑에서 비롯한 이 고전적 텍스트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그 선의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빅토리아조 말기 영국의 가부장적 세계관과 가정관의 틀에 주목하게 된다. 당대에 유통되고 승인되는 도덕률에 거슬릴만한 여하한 관능적이고 성적인 요소를 삭제하거

1) Green, Peter, ed. *The Wind in the Willows*(New York: Oxford UP, 1999). 이 후는 『버드나무』로 표기함.

나, 교리문답적 표현과 소재를 통해 교훈적인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요구되는 남녀 성차별을 던지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바로 그 예이다.

『버드나무』는 자연과 친구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남성적 인물들에 대한 서술로써, 동성들 간의 단순한 전원적 생활이 주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어린이 소설은 무엇보다도 남성 위주의 사회를 전면화함으로써 여성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던 듯하다. 그레이엄의 판타지 세계는 남성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남성 간의 유대를 저해하는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주변화 한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이상적 세계란 남성들만의, 그리고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환상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레이엄의 동화에는 물론 남성을 죽음이나 고통 등 치명적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악녀’나 ‘요부’는 없지만, 남성들을 압도하고 지배할지 모르는 여성(들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남성 판타지를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레이엄이 창조해낸 4명의 미혼 남성들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felicitous space)”을 찾아 망설임 없이 모험을 감행하고, 결국 안전과 평화 그리고 평온함이 보장되는 그들만의 자연 속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 남성들만의 파라다이스에서, 눈보라 속에 어린 고슴도치를 학교로 보낸 엄마 고슴도치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제외하고 여성은 전경화되지 못한다.

『버드나무』는 흔히 아름다운 아동기의 환상과 행복을 그리고 있는 목가적이며 유토피아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상화된 자연 속에서 남성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우정과 유대는 긍정적인 면모가 없지 않다. 그러

나 그레이엄 자신이 아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함으로써 알러스테어 (Alastair Grahame)의 비극적 종말에 기여한 바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네 명의 남성 등장인물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남성 유대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허약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이런 문제점은 비평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레이엄의 이상화된 남성중심적 유토피아에서조차도 여성적 가치와 여성의 존재가 남성적 이상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면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이 사실이 그레이엄의 판타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 문학 텍스트 속에서 착종된 형태로 재현되는 가부장적 양상을 세심하게 가려내고, 그것이 성차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담론적(**discursive**) 기제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여성주의적 읽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1. 부재하는 여성, 주변화된 여성	22
2. 남성간 유대(male bonding)	32
3. 자연	47
III. 결론	55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The advent of a feminist perspective has transformed the way that it is possible to think about children's literature (and other non-canonized literatures as well). The proximity of children's literature to the domestic, nurturing, maternal, and, thus, the feminine sphere can be seen as a contributing factor in the marginalization of the subject in academic discourses. However, it is notion of the silencing of the "Other", whether it be women, children, or those who are racially different, that enriches what it is possible to say about children's texts and that has led to the process of change currently taking place. (Thacker 3)

케네스 그레이엄은 20세기 초반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던 아동문학 작가 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1859년 3월 28일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그레이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황금시대』(*The Golden Age*, 1895)와 『꿈속의 나날』(*Dream Days*, 1898)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이다. 두 작품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른 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어린이를 위한 '가정 소설'이라는 장르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두 작품은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는 부모 없는 다섯 아이를 소재로 삼은 이야기들이다. 그레이엄은 실제로 다섯 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죽고, 친척 집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랐다. 그의

아동기는 말하자면 아버지의 실종과 어머니의 죽음과 더불어 붕괴되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친척의 후의 아래 자라야만 했던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은, 후일 그의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어머니 부재’와 ‘모성 콤플렉스’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런 점에서 그의 문학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여성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는 그의 유년기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레이엄 작품을 관류하는 미혼 남성들의 공동체와 우정이라는 주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레이엄이 “결혼하기 전에도 미혼의 생활과 남성들 간의 마음 편한 우정을 찬양”(252)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한 빙엄(Bingham)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레이엄의 두 작품이 당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로 흔히 거론되는 것은 어른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태도를 풍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인독자들에게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점은 본 논문에서 다룬 아동용을 위한 작품, 『버드나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평가일 수 있다. 두 작품의 출간으로 명성을 얻은 그레이엄은 1899년 엘스피스 탐슨(Elspeth Thomson)과 결혼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생활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결코 순탄하지 못했으며, 불화와 잦은 별거로 점철된다. 둘 사이에 태어난 유일한 아들 알러스테어가 스무 살의 젊은 나이에 기차에 치여 숨지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그의 불편한 결혼 생활은 1932년 7월 그레이엄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레이엄의 결혼생활의 중심에는, 축복이자 불행한 가족사의 상징이 되었던 아들 알러스테어가 결혼 일 년 후 “한 쪽 눈이 안보이고, 다른

쪽 눈은 사시”(Kuznets 13)인 상태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있다. 이처럼 시력이 약해 거의 볼 수 없었던 어린 아들을 위해 그레이엄은 침대 밑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이렇게 아이의 잠자리에서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고, 그 에피소드를 한데 묶어 발표된 작품이 바로 『버드나무』이다. 많은 아동문학 작품에서 종종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은 하는 ‘시각적’ 경험이 이 작품 『버드나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가족사적 기원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레이엄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강력한 시각적 기억으로 남기보다는,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 역시 이런 맥락에서 설명가능하다. 예컨대 땅속 두더지인 모울(Mole)이 작품의 주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였던 아들을 위해 그레이엄은 수많은 아버지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 그런 따뜻한 부성애를 과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의 부성애는 다른 한편으로 아들의 특수한 처지에 눈감은 채 아들을 통제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알러스테어에게 맹목적으로 사랑을 바쳤던 그레이엄과 그의 아내는 아들의 모든 생활에 관여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장애상태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투사한 측면의 결과였다. 부모가 만들어 보고자 하였던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아이’의 모습 대신 알러스테어의 짧은 생애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끝이 결국 불행한 종착점이었던 것처럼 그레이엄의

작품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여러 겹의 이데올로기야말로 바로 20세기 초반 아동문학의 한계와 가능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기록물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브론윈 데이비스(Bronwyn Davies)가 주장한 바 있듯이, “어린이가 어른과 다른 존재로 규정되는 방식은 여자가 남자와 다른 존재로 규정되는 방식과 똑같다”(김서정 164, 재인용). 남성은 지배와 자기 정의(定意)라는 이데올로기적 과정 안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이용한다. 남성의 시선(gaze)과 목소리에 의해 여성의 역할이 규정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문학 속에서 발견되는 어린이는 어른의 시선 속에 포섭되고 어른의 기대와 관념이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과 어린이는 흔히 동일 선상에 놓인다. 그들은 수동적이고 복종해야 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담론을 펼칠 수 있는 목소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서 요구하는 삶을 답습하도록 요구받는다.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에서 쉘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여성과 어린이는 보호 아래서 ‘특권 계급에 속하는 노예’의 처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Paul 152, 재인용). 일반적으로 여성과 어린이는 남성보다 더 작으며 약하기 때문에 억압이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그러나 무기력함은 더 이상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피지배계급에 의해 경험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작고 약하며 무력한 주인공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더불어 그들의 생존 전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레이엄의 아동소설을 여성 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논지이다.

페미니즘의 등장 및 발전으로 타자를 침묵시키는 백인 남성 작가의

정전에 비추에 볼 때, 여태까지 주변화 되었던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왔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동 문학이다. 왜냐하면 아동 문학이 여성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가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페미니즘 문학의 발전은 앞으로 아동 문학이나 주변화된 문학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

리사 폴(Lissa Paul)이 지적한 바처럼, “아동 문학 연구에 페미니스트 이론을 전유하기 위한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Hunt 149, 재인용). 여성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간주되어왔다. 그들은 행위의 현장에서 제외되었으며, 보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쯤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이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담론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에이드리언 리치(Adrienne Rich)는 다른 페미니스트 비평가와 함께 현상(status quo)을 “재협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이데올로기의 가정이 텍스트 속에서 풀어지는 방법을 보기 시작했고 ‘다른’ 이야기에서 여성의 전통을 찾아내었다. 또한 페미니스트 아동 문학 비평가들은 여성 문학 전통의 회복에 참여한다. 페미니즘 연구에서 가장 유용한 영역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들의 항변, 그들의 창조성 그리고 이를 담고 있는 작품의 전통, 다시 말해 인식되지 못하거나 상실된 채로 지속되어온 그 전통을 재발견하는 분야이다. 그의 이야기(history, 역사)뿐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herstory)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강희원 32, 재인용). 가정적이고 사소한 일들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가의 관심이 어린이 문학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시키는 방

법론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

초기 마르크시스트들은 여성의 종속을 본질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해 여성의 종속을 계급 구분과 연관시켜 설명하려 했다. 여성들 특별히 19세기의 거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들은 출산의 노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늘 남성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활동영역은 결국 출산과 가사 또는 가장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노동으로 제한되었다. ‘여성의 활동영역을 남성의 영역과 분리시키는’ 합의는 자본가와 노동계급의 남성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이는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다(강희원 303, 재인용).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계급사회에서 힘없는 다수가 생산해낸 부를 힘 있는 소수가 장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진정으로 공평한 기회를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본래 모두 남성이었음)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범인형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와 같은 현대의 구현체로 귀결된 계급사회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태를 숙고해보면 남성에게 여성보다 특권을 부여하는 더욱 광범위한 사회규칙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여성압박의 원인임을 암시 받게 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왜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억압당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여성의 노동지위와 여성의 자아상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이소영 63, 재인용).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일이 여성의 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의 본성”을 형성한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그들은 또한 자본

주의가 교환관계뿐만 아니라 권력관계 체계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교환관계 체계라고 간주되는 경우, 그것은 인간의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가격이 있으며 모든 거래가 근본적으로 교환거래가 되는 상품사회 또는 시장사회로 묘사된다. 자본주의가 권력관계 체계로 간주되는 경우, 그것은 온갖 종류의 거래관계가 근본적으로 착취적인 그러한 사회로 묘사된다.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한 여성들의 종속관계에 대해서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는 경제적 불평등이 여성 억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부권제 통치의 가장 유효한 분야의 하나는 여성 피지배자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이다. 전통적 부권제에서는 여성은 독자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생계를 소득 할 수 없었으며 법적 신분이 없는 비인격자로서 경제적 실재가 허용되지 않았다. 부권제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판에 박힌 일상적인 일 혹은 힘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경제적인 보수인 것이다. (정의숙 79, 재인용)

일반적으로 부권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경제적 의존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불신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규범적 기관(종교, 심리학, 광고 등)은 중산계급의 여성, 특히 어머니들의 고용에 대하여 계속 반대하며 매도하기까지 한다. 노동자계급의 여성 노동은 노동자 계급 자체가 항상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산계급에 의해 “필요”한 것으로서 좀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여성노동은 확실히 공장과 저급 서비스 그리고 사무적인 일에 값싼 노동을 공급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그 임금과 일은 너무 보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을 좀더 명성이 있는 직업에 고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권제를 위협하는 일은 없다.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피지배자로서의 여성의 종속에 분노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구했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안정된 사회 혹은 안정과 번영이라는 이념의 시대에 출판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이 19세기 후반(1837~1901년)을 치세했던 대영제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하며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시기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18세기 후반 시작된 산업혁명의 결과 빠른 산업화를 경험하여 “세계의 작업장(the workshop of the world)”이라 불려질 정도로 경제적 산업적인 성장과 번영을 누렸으나, 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 초기에는 사회계층적인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은 시기이기도 했다. 상공업·무역에 종사하여 성공한 중산계층은 부를 축적하면서 신분상승을 해나갔고, 공리주의적 윤리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자기만족적이며 고상한 체하는 도덕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빅토리아니즘(Victorianism)이 생겨났다. 빅토리아 시대의 자본주의, 도덕주의, 민주주의를 통틀어 빅토리아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상은 문학의 다양한 배경이 된다. 한편에서는 인구가 도시로 지나치게 집중되었고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은 비참하여 그 결과 차티스트운동과 같은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일어났다. 문학은 당연히 그런 사회를 반영하였다.

그레이엄의 삶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사회적 변화와 동시에 일어났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세기의 마지막 20년간은 사회적

인 차원에서나 문학적 흐름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버드나무』가 출간되었던 1908년경의 영국은 그레이엄이 기억하고 있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사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빅토리아주의는 안과 밖에서 붕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레이엄 자신의 인생이 증거하듯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심지어 미국조차도--은 임박한 전쟁의 위기와 경제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영국 경작지의 면적이 1870년과 1900년대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은 경제적 사실이 예증하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은 그레이엄의 아동소설이 제시하고자 애쓰는 목가적 이상에 현실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피터 헌트(Peter Hunt)가 지적한 것처럼, 정치경제적 불안과 맞물린 “사회적 불안”은 그 시기에 쓰인 많은 아동문학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4).

사회경제적 위기 못지않게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역사적 문맥은, 바로 남성의 권위와 지배가 역사상 가장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등장한 여권 운동은 비록 효과적이거나 파괴적이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질서를 아래로부터 흔들어 놓을만한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표가 될 자격은커녕 투표할 권리조차 없었던 이 시대 여성들은 무엇보다 차티스트 운동(Charterism)을 시작하였다. 여성 참정권 운동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서구에서 ‘제 1 물결’(First Wave) 여성운동, 혹은 여권운동(Women’s Rights Movement)이라고 불리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 여성 참정권 요구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의회

선거권을 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 및 직업 진출의 자유, 재산 및 결혼과 관련된 법의 개정 등이 여성운동의 목표로 떠올랐는데 그 중 참정권 요구는 가장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비교적 늦게 달성되었다. 이들의 여성운동은 독자적 권리 요구를 천명하기보다는 가족과 남편과의 관계중심으로 담론을 풀어나갔다. 예를 들어 1866년 자유당 하원의원 밀(Mill)은 1,499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지만 부결된다. 1850, 60년대부터 런던을 중심으로 교육, 정치, 직업 분야에서 여성 권리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방법은 1890년대까지 실내 모임과 서명, 청원 방식을 채택하였고 1897년 전국 여성 참정권 협회(NUWSS)를 결성하게 된다. 1903년 여성 사회 정치 연합(WSPU) 결성 이후 가두시위, 행진, 거리 연설, 기습 방문 항의, 낙서, 납세거부의 시민불복종운동을 활용하기도 한다. 여성 참정권의 첫 실현은 1차 세계 대전이후 30세 이상 지방 선거 유권자 자격을 갖춘 여성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였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가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집필된 작품이라는 것 못지않게, 19세기 아동 문학의 역사라는 정황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또한 있다. 어린이 책이 가르침의 도구로 활용되고 판타지(fantasy)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이전 세기에 비하여, 19세기는 아동문학의 중요한 분수령을 이룬다.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의 모험』(*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865)과 찰스 킹즐리(Charles Kingsley)의 『물의 아이들』(*The Water-Babies*, 1863)은 어린이 문학이 새로운 단계에 도래하였음을 알린 작품이었다. 헌트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물의 아이들』과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의 모

협』의 출판과 1차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은 어린이 책의 첫 황금기로 여겨졌다”(59). 특히 1871년은 괄목할 만한 해라 하겠는데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 (*Through the Looking Glass*), 수잔 쿨리지(Susan Coolidge)의 『케이트 이야기』 (*What Kate Did*), 그리고 조지 맥도날드(George Macdonald)의 『공주와 고블린』 (*The Princess and the Goblin*)이 출판되었다. 또 다른 전기는 1902년에 일어났는데, 러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바로 그런 이야기들』 (*Just So Stories*), 네즈빗(E. Nesbit)의 『다섯 아이들과 그것』 (*Five Children and It*), 비트릭스 포터(Beatrix Potter)의 『피터 래빗의 이야기』 (*The Tale of Peter Rabbit*)등이 출간되었다. 이 반 백년의 시기에 쓰여진 많은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히고 전 세계 어린이 독자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시기의 책들은 미성숙한 전환기라는 아동기에 대한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삶의 한 국면으로서 아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아동문학에서 점차 빈번히 발견되는 개별화된 어린이 주인공을 다루는 진화된 방식(예컨대, **single address**)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린이 책들의 서사구조는 점차 더 복잡해지고, 교훈적인 의도도 전면에서 감춰지고 대신 오락성이 적극 부각되는 현상을 보인다. 어떤 점에서 아동 문학은 어른들로부터 혹은 어른들의 자기투사로부터 점차 멀어져가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아동문학은 이제 어린이에 “관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구성되는 서사의 경향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 속에 반영된 아이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빅토리아 시대 문학의 가장 주된

특징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형식과 주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성은 부분적으로 빅토리아 시대 작가들의 대담한 독립정신과 문학적 실험에 대한 열정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성과 아동을 둘러싼 새로운 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사회에서 문학과 예술의 기능을 둘러싼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라의 결과이기도 했다.

필리프 아리에스(Philippe Aries)와 같은 역사가에 따르면,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이르러 ‘어린이’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근대적’ 현상의 하나라고 한다. 『아동의 탄생』(*Centuries of Childhood*)라는 아리에스의 저서에 따르면, 가족 초상화와 어린이를 주제로 한 일련의 회화사, 루이 13세와 같은 왕족과 귀족의 성장 일기, 교육제도의 사적 전개 등에 주목함으로써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개념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중세 사회에는 아동기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무시되거나 버림받거나 혹은 경멸당했다는 것은 아니라 어른과 청년의 자질과는 구분되는 어린이만의 특별한 본성을 찾으려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이가 어머니나 유모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자마자, 아이는 어른과 더 이상 구별되지 않고 곧장 어른의 세계에 합류했다. 어린이는 오늘날처럼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 “젊은이”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개념은 놀이나 기술 같은 사회적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6세기에 어린이는 재롱이나 부주의함이라는 요소로 어른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어린이의 버릇없음이 경멸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다. 17세기의 교육자들은 어린이와 이들

의 본성을 더 이상 재롱과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찾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 어린이에게 심리적 관심과 도덕적 배려를 보이게 된다. 그들은 어린이의 경솔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어린이를 이해하고자 했다.

아리에스가 설득력 있게 제시한 바처럼, ‘아동기’(childhood)는 인구학적 구분과 도덕 교육이라는 두 개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18세기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부각된 개념이다. 그 이전에는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실제 나누는 경계선이 불분명하였다. 예컨대 윌리엄 브레이크(William Blake)의 시편들이 웅변적으로 증언하듯이, 어린이가 어른과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강도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아동기에 요구되는 적절한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의지가 확고하지도 않았다. 존 로우 타운젠드(John Rowe Townsend)는 위와 같은 현실을 잘 드러내 설명한다.

중세나 초기 튜더 왕조 시대의 영국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수도사가 되려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는 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장시간의 육체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상인의 자식이나 중·상류층 아이들은 도제살이나 시동으로 보내지는 것이 보통이었고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명문가의 자식들은 열 살이 되기도 전에 정략결혼을 당하기도 했다. 모든 계급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어린 나이에 죽어갔다. (강무홍 14, 재인용)

근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한 이러한 ‘무인식’은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르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개별적인 욕구와 특별한 존재요건을 가진 집단으로 어린이를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들을 ‘작은 혹은 미숙한 어른’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입법된 교육관련 법안들은 당대 사회가 아이들이 읽고 쓰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승인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아동기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의 성장은 19세기 아동문학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만의 문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식되기 전까지는 어린이 문학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전에 아동문학이 성장할 수 없었던 까닭도 바로 어린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즉 기껏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회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동문학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단순히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독자적인 요구와 관심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리에스가 주장하듯 19세기가 ‘어린이’를 ‘어린이’로 인정한 최초의 시기라는 점에서, 19세기 문학의 역사 속에서 어린이문학의 고전적 모범들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어린이는 그들만을 위한 책이 필요했다. 물론 헌트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어린이책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자리 잡기 이전부터 존재했다”(27). 헌트가 ‘어린이책’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바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들

이 읽었던 책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아동문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아동 문학이 1700년대에야 비로소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하고 그 의미가 확대되어 왔다” (27)라고 주장하며 아동문학의 역사를 18세기까지 끌어올린다. 그의 책이 명쾌히 설명해주는 바 있듯이, 어린이책의 역사는 수많은 부침의 곡절을 보여준다. 어린이책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당대의 사회 문화적 제약에 따른 것인데, 특히 어린이책의 기능을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면으로 제약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이전 아동 문학이 이러한 교훈주의(didacticism)의 울타리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영국 아동문학사 이해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교훈주의는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과 그 책을 읽는 대상 사이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전면화한다. 실제로 19세기 이전 어린이책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책을 만드는 어른들의 의도 즉 어린이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더욱 강한 종교적 믿음을 심어주려는 노력이야말로 아동문학이 발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였던 셈이다. 어른들의 교훈주의에 의해 장악당한 어린이책이 아동교육을 위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뿐더러,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구적으로만 바라보는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아동 문학의 초기 역사에 관하여 버짓 댄커트(Birgit Dankert)가 지적한 것처럼 “아동기라는 개념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것처럼 아동 문학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 18세기 유럽 계몽주의로부터 탄생된 사회적 구성물”(Hunt 37, 재인용)인 것이다. 아마도 아동기에 대한 19세기 견해와 그 이전 생각의 차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조는 18세기까지 어린

이책 시장을 지배했던 청교도적인 텍스트에서 발견될 것이다. 17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 출판된 책들은 모두 교과서나 예절 책, 아니면 도덕책들이었다. 예절 책들은 처음에는 올바른 행동에 중점을 두다가 청교도의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종교와 도덕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청교도들은 분명히 어린이란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좀 특별한 의미로서, 구원해야 할 어린 영혼 또는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린 영혼으로 여겼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린 영혼을 지옥의 불길에서 구원하겠다는 목적에서 수많은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청교도적 가치관은 미국 아동 문학에 더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아동문학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 영국의 칼뱅파 교재를 수입했고 18세기 말까지 선교적인 태도가 어린이 책을 지배했으며 19세기 말까지는 직접적, 반동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어린이책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변화하였다. 그 변화는 어린이책에 깊이 자리하고 있던 종교적 영향들이 감소하였고 어린이책을 구속하던 금기들도 사라져 버린 현상이다. 18세기 초에 이르러서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태도가 자리를 잡았다. 어린이는 사악한 존재로 타고난다는 생각은 낡은 근본주의 기독교와 함께 사라졌다. 어린이는 순수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새로운 지식과 합리론에 기초한 생각에 자리를 양보했던 것이다. 어린이는 문자 그대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

어린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아동 문학역시 주류에서 무시되었다. 여성문학 역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아동문학은 언제나 평가 절하되었으며 문학적·교육적 공동체에 의해 주변부로서

간주되어 왔다. 아동 문학과 여성 문학은 주변화되고 무시되었다는 점 이상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수많은 아동문학 작품이 주로 여성 작가들에 의해 출간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아동 문학은 여성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문학 장르인 것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의 어린이 문학은 중상류 부르주아 부인들의 중요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 물론 이들은 종교적 온건주의자에서 엄격한 도덕주의자까지 다양하였는데, 어린이 책에 대한 그들의 지대한 관심은 아동문학 성장의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따라서 아동 문학을 여성 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버드나무』는 사실성과 판타지가 공존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그레이엄의 어린이 소설은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영국의 문학적 성취와 긴밀히 연관된다. 19세기 후반은 사실성과 판타지의 대조적인 요소들이 공존할 수 있었던 사회였다. 18세기에는 온갖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문제에 있어서만은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 바로 민담(folktale)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성의 시대에는 민담을 촌스럽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대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어처구니없는 일, 터무니없는 상상의 냄새가 나는 것은 모두 18세기 사고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상상력은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19세기 초에 이르러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주로 구전되거나 또는 극히 조잡한 인쇄를 통해서 전해져 온 오래된 요정담이 어린이 문학 속에 공인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요정담의 복귀는 19세기 내내 계속되

었고 여기에 현대의 동화나 판타지가 합류하게 된다.

『버드나무』는 또한 목가적 전원문학(Pastoral idyll)의 전통 속에 있는 작품이다. 고대 그리스나 르네상스 시대에 목가적 전원문학을 읽었던 전통적인 독자는 세련된 도시 귀족들로, 그들은 전원생활이 자신의 생활보다 더 순수하고 단순한 생활--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한 상상으로서 전원문학을 즐겼다. 많은 어린이용 텍스트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실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향수를 드러낸다. 그 텍스트들은 아동기를 어린이들 대부분이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천진하고 달콤하게 그린다. 목가적 전원문학은 묘사하는 이상화된 세계와 현실과의 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 책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낙천적 시각이 문학의 전통적 장르 중 하나이다. 목가적 전원문학은 자연과 친구에 둘러싸인 단순한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 형식이다. 『버드나무』의 동물 주인공들은 예를 들어 소풍 바구니를 싸가지고 한가로이 배를 타고 놀면서 목가적인 황금시대의 꿈같은 나날을 보낸다. 제럴딘 포스(Geraldine Poss)는 “『버드나무』는 여러 가지 어린이용 텍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건들을 순결한 목가적 환경 안에 배치해서 안전하게 보이도록 만든다”(84)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시 말하면, 위험한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버드나무』가 만들어 내는 세상은 종종 유토피아적이라고 여겨진다. 수많은 어린이 문학이 천국과 같은 아동기의 비전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이라는 단어는 많은 어린이 문학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통 어린이들이 고통이나 상처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고 추측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고통과 잔인함에 대한 의식 없이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문학도 사물을 천진하고 낙천적으로 보는 방식을 표현한다고 믿는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 문학의 특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피 엔딩을 꼽는다. 사라 스미드먼(Sarah Smedman)에 의하면, “희망’은 어린이책의 생명이다. 그 책의 독자들은 인생의 시작 단계에 있고 각자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직 잔인한 영역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91).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더 설득력 있는 비판적 시각은 사라 질리드(Sarah Gilead)가 제시하는 견해이다.

사실상 가장 전원적인 어린이 책에도 어른의 고통스러운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어른은 그것을 빼놓기로 결심한다. 어린이들의 체험, 심정과 느낌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되살려졌건 간에, 거기에는 투쟁과 모순과 현실적 필연성에서 탈출하고 싶은 어른들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표면상 갈등과 이중성이 없는 영역인 전원문학은 어른들의 지성, 아이러니, 성(sexuality), 투쟁과 사회적 권력 서열에 대한 감각으로 걸러진다. (146)

The generic norms of the idyll, regression and simplicity, appear to guide the production of children's literature. But the prevalence in children's literature of oblique symbolism, imagery, and allusions suggests that it is a peculiarly subversive literature, full of absent

presences and present absences. However successfully evoked, the projected child's experiences, mentality, or feelings reflect an adult's need for escape from necessity, conflict, or compromise. Determined cheerfulness or confident morality mask a guilty poignancy. An ostensibly unambiguous realm, the idyll is filtered by adult intellectuality, by an awareness of irony, sexuality, conflicts, and social power arrangements.

스미드먼과 질리드의 주장에서처럼, 어린이 문학이 제공하는 즐거움 중의 하나가 도피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그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린이 문학에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계에 몰두하도록 만들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장소에 있다고 상상하게 만들어 잠시 동안 자신에게서 도피하려는 판타지가 들어있다. 어린이책이 단지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전형적인 해피 엔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의 일부분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버드나무』는 어린이 문학의 주요한 특징인 판타지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꾸미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또한 그렇다.

본 논문은 『버드나무』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의 형상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여성이 주류가 되어 일궈왔던 아동 문학의 역사에

서, 남성 작가에 의해 출간된 이 아동문학의 고전은 19세기 영국의 아동문학 흐름이 한데 모인 중요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 문제점과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20세기 중반 이후 중요한 성취를 이룬 여성주의적 시각은 여성-어린이의 이형동질적 상황을 보다 엄밀하게 설명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주류 문학 전통 속에서 이제까지 배제되거나 왜곡되어 재현되어왔던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필자의 믿음이다.

II. 본 론

1. 부재하는 여성, 주변화된 여성

『버드나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양육을 담당하는 남성 사회의 실례이고 전원풍의 남성만이 현존하는 동물의 세계이며 여성의 통제와 거의 없는 세계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그레이엄이 작품 속에서 여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버드나무』는 여성혐오와 동성사회적 우정과 더불어 여성과 같이 타자로서 규정되는 모든 것에 관한 텍스트이다.

『버드나무』에서 그레이엄은 어린 시절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서로의 우정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아동기가 성의 충돌이 없는 시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루이스 커즈넛(Lois R. Kuznets)이 단언했듯이, “『버드나무』는 성의 충돌을 억압하고자 했으며 그것은 확실히 전통적인 주제--남성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여성의 위험한 권력, 아버지에 의해 철저히 받아들여지는 남성의 갈망--를 새롭게 각색하고 영속하게 한다”(175). 그래서 그레이엄은 남성위주의 사회공동체를 그리면서 여성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가급적 피할 수 있는 아동기를 이상화한다. 독자는 『버드나무』에서 여성의 부재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남성적 동물들의 공동체에 여성의 자리는 없거나 보이지 않도록 그려진다. 그레이엄에 관한 전기적 사실을 따라가 보면, 『버드나무』가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레이엄의 삶은 무성

(asexual)인 것처럼 보였고 대부분 남성들의 사회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엄 자신의 아르카디아인 것이다”(Hunt 85). 『버드나무』에서 폐쇄적인 동성 집단 속에서 서로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비록 그레이엄 자신이 『버드나무』에는 “성의 충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로렌스 러너(Laurence Lerner)는 전통적인 아르카디아(Arcadia) 문학이 성(sex)을 수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아르카디아를 재현하는 문학은 한편으로 욕망의 실현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욕망을 모두 제거한다고 러너는 말한다. 후자의 경우 만일 등장 인물들이 느끼는 욕망을 정복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금욕주의(asceticism)의 엄격함을 경험하고 다시 영웅주의를 향하여 움직인다(Poss 85, 재인용).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그레이엄의 판타지 속에서 ‘부재하는 현존’이며 남성 인물의 남성을 확인하는 척도(yardstick)이다. 남성적 (혹은 남성들만의) 세계는 실상 ‘무성의(asexual) 세계’가 아니라, ‘이성’(the other sex)을 부정하고 배제하며 주변화하는 ‘성차별적 세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버드나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신은 모두 남성이 다. 눈보라 속에 어린 고슴도치를 학교로 보낸 엄마 고슴도치의 간단한 언급을 제외하고 『버드나무』의 동물 공동체는 “또 다른” 성(sex)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여성은 없다. 오로지 토드(Toad)가 감옥에 구금되어 여성 세탁부(washerwoman)로 가장함으로써 탈출을 시도했을 때 인간의 형식으로 ‘여성’은 내러티브 속에 들어온다. 이 인간여성의 경우

에도, 여성의 출현은 이질적 요소의 침입과 같은 경멸의 대상이며 이야기의 흐름과 일관성을 깨트리는 인물로 묘사된다. 두 여성인간--교도관의 딸과 거룻배 여사공--은 남성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신뢰와 우정으로 가득 찬 세계의 균형을 파괴한다. 인간은 동물 세계와 긴밀하게 결부되기보다는 충들을 조장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포틀리의 엄마, 엄마 고슴도치, 엄마 족제비같은 여성 동물은 남성 동물인 토드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로지 인간 여성들에 의해 이들 남성 동물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데 여성 혐오적 혐의가 짙게 배어 나온다고 하겠다. 동물은 인간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다. 토드가 친구들에 의해 침실로 갇혀 들었던 위로 중 하나는 “병원에서 두 번 다시 여자 간호사에게 지시당하는 일도 없겠지”(“And no more weeks in hospital, being ordered about by female nurses” 63)라는 모울의 말이다. 이와 비슷하게 토드의 불행을 열거하는 래트는 그가 간파한 깊이를 지적한다.

... but, seriously, don't you see what an awful ass you've been making of yourself? On your own admission you have been handcuffed, imprisoned, starved, chased, terrified out of your life, insulted, jeered at, and ignominiously flung into the water--*by a woman*, too!

... 하지만 정말로 여태까지 네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아니? 바로 너 스스로 저지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쫓기고, 네 생활에서 벗어나 혼비백산하고, 모욕당하고, 놀림당하

고, 불명예스럽게 물에 던져지기까지 했어. 게다가 그것도 *여자에 의해*
서! (124; 강조는 본인의 것)

온갖 종류의 위험과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가득한 와일드 우드(Wild Wood)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세상이 와일드 월드(Wild World)라면, 그곳에서 부닥치게 되는 여성 인물은 바로 와일드 월드의 위협을 대표한다. 거룻배 여사공(bargewoman)에 의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토드의 경우는 바로 여성에 의해 남성적 자존심과 정체성이 위협받는 경우라 하겠다. 토드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소유한 그녀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You common, low, fat bargewoman!’ he shouts; ‘don't you dare to talk to your betters like that! Washerwoman indeed! I would have you know that I am a Toad, a very well-known, respected, distinguished Toad! I may be under a bit of a cloud at present, but I will not be laughed at by a barge-woman!’

이 교양 없고, 천박하고, 뚱뚱한 거룻배 여사공 같으니! 자기보다 높은 동물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너야말로 영락없는 세탁부다! 내가 토드라는 걸 알려 줘야 하는데. 그 유명하고 존경스럽고 훌륭한 토드라고! 지금은 이런 처지에 있지만, 난 거룻배 여사공한테 놀림이나 받을 동물이 아니야! (112)

남성 우월주의를 내재화한 토드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거룻배 여사공이 여성이라는 사실만을 들어 폄하하며 업신여기려 든다. “아주 심사가 나쁘고 뚱뚱한 여자에 의해” (“by a woman, fat of body and very evil-minded” 117) 강으로 던져지는 것은 리버 뱅크(River Bank)에 살고 있었더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이 작품에서 본격적인 여성인물의 등장은 “Toad’s Adventures”장에서이다. 그 여성은 독립적인 이름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교도관의 딸로서만 불려지고 규정되는 인물이다.

Now the gaoler had a daughter, a pleasant wench and good-hearted, who assisted her father in the lighter duties of his post. She was particularly fond of animals, and. ... This kind-hearted girl, pitying the misery of Toad, said to her father one day, ‘Father! I can't bear to see that poor beast so unhappy, and getting so thin! You let me have the managing of him. You know how fond of animals I am. I'll make him eat from my hand, and sit up, and do all sorts of things.’

그 간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성격이 쾌활하고 마음씨가 고와서 가벼운 일은 아버지를 거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유난히 동물을 좋아했다. ... 하루는 마음씨 고운 아가씨가 토드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 불쌍한 동물이 저렇게 슬퍼하면서 야위어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저 동물을 돌보게 해주세요. 제가 동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

좋아요. 나는 그에게 나의 손으로 음식을 먹여주고 밤을 세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요.' (81-2)

교도관의 딸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것처럼 그려진다. 그녀는 토드에게 토스트를 가져다주기도 하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마치 어머니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를 양육한다. “쟁반에는 두껍게 잘라 양쪽을 갈색으로 구워 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별집에서 꿀이 흐르듯이 빵 사이로 녹아내린 금빛 버터가 흘러 나왔다”(“A plate piled up with very hot buttered toast, cut thick, very brown on both sides, with the butter running through the holes in it in great golden drops, like honey from the honey-comb” 83). 그녀가 제공한 맛있는 음식들은 토드에게 용기를 가져다주었고 과거의 토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도관의 딸은 토드가 스스로를 찾아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미화된 교도관 딸의 모습은,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종류의 헌신적 여성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도관 딸의 “소녀” 이미지는 토드가 기대하는 여성, 혹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레이엄의 판타지 속에서 추구하는 여성이 어떤 종류인지 예상하게 해준다. 그녀는 음식이나 마실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토드를 비롯한 남성에게 성심으로 봉사하는 여성상을 형상화한다. “명량한 소녀이고 마음씨 고운” (81) 교도관의 딸이 토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여성 세탁부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버드나무』에서 사실상 어머니는 없다. 어머니의 역할이나 자리는 아버지같은 인물에 의해 대체된다. 예를 들어, “The Piper at the Gates of Dawn”장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어린 포틀리(Portly)를 찾아나서는 일은 오직 남성 인물에게 위임된다. 래트가 오터(Otter) 가족을 “그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식구가 여럿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잃어버린 포틀리에 대한 관심은 아버지 혼자만의 것으로 그려진다.

I'm afraid they're in trouble. Little Portly is missing again; and you know what a lot *his father* thinks of him, though he never says much about it.

그들이 곤경에 빠져서 걱정돼. 어린 포틀리가 또 없어졌대. 내색은 안 해도 그의 *아빠*인 오터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71; 강조는 본인의 것)

오터 부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그녀는 결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오로지 넌지시 오터의 부속물(adjunct)처럼 언급될 뿐이다. 오터 부인은 결혼과 함께 가부장제에 편입되고, 동시에 자아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20세기 초반 여성의 일반적 삶을 대변한다. 그녀는 재생산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 근간이지만, 어린 포틀리에 대한 애정의 문제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그것이 더욱 각별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터 부인이 오

로지 남성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만 인지되고 규정되는 것처럼,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주변화되고 후경화된다. 여성을 배제하고 주변화함으로써 성간(between sexes)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 위주의 파라다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버드나무』의 모험은 순진무구한 남성동물이 전원적 환경 안에서 펼쳐는 여행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그곳에는 요정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듯이, 한 여성을 쟁취하기 위한 남성과 남성간의 싸움이 벌어질 이유가 없다. 이 아름다운 남성 공동체는 여성을 배제한다기보다, 차라리 여성의 자리를 지워버리고자 한다. “그레이엄은 아내와 어머니의 고유한 양육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을 제거한 방법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와일드 우드’와 경계를 진 ‘리버 뱅크’안에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좀 더 손님을 환대하고 보다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으로 즐길 수 있는 맛 좋은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와일드 월드’에서는 단지 교도관의 딸만이 이런 일들을 수행한다”(Kuznets 176). 어린시절에 대한 어른(그레이엄)의 추억은 모험과 우정으로 가득한 전원적 세상 속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그 세상에서는 성(sex)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을 위해 다른 성별을 가진 자들이 봉사해야하는 일반적이고 위계적인 질서가 승인된다. 그레이엄의 텍스트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모울, 래트, 토드, 배저(Badger)--모두 미혼 남성(bachelors)이지만 여성과의 조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혼 남성인 모울, 래트, 토드, 배저는 상호간에 “조력자이고 친구”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구라도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 모면할 수 있도록 힘껏 돕는다. 그들은 같은 성 사

이에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성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없다.

와일드 월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와일드 우드의 남성 공동체가 향유하는 구조, 언어 그리고 균형을 어지럽힌다. 『버드나무』에서 여성들의 배제는 여성 혐오를 함축한다. 페미니즘 정신 분석가들은 여성 혐오, 즉 여성에 대한 미움은 아이가 어머니를 향해 품는 원초적인 분노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육아를 여성에게 할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심정순 213, 재인용). 『버드나무』에서 여성은 재산과 권력, 그리고 정체성의 결여(lack)로써만 존재의 공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토드가 여성 세탁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녀의 옷을 입는 문제가 아니다. 그는 여성 세탁부의 행동이 그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여성 세탁부의 정체성의 사회적 구조를 경험한다. 커즈넷에 의하면, “『버드나무』에서 여성은 영원히 타자(the Other)로 남아있다. 유토피아적 목표는 연인, 아내, 어머니, 누이, 딸 또는 숙모뿐만 아니라 배안에서 장난삼아 놀기 위해 혹은 멋진 야외에서 연회에 참석해 행복한 친구로서 완전히 여성을 배제하는 동안 전통적으로 여성의 가치로서 간주되는 것을 구현하는 사회이다”(Kuznets 179).

만일 “어떤 황금 주권자의 시각”에 대해서 여성 세탁부의 반응이 토드에게 그녀의 존재에 대한 경제적 배경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 기차역에서 그의 경험은 확실히 그러하다.

To his horror he recollected that he had left both coat and waistcoat behind him in his cell, and with them his pocket-book, money, keys, watch, matches, pencil-case -- all that makes life worth living, all that distinguishes the many-pocketed animal, the lord of creation, from the inferior one-pocketed or no pocketed productions that hop or trip about permissively, unequipped for the real contest.

돈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뻗은 그는 끔찍하게도 감방에 코트와 조끼를 남겨 두고 온 것을 기억해 냈다. 그 안에는 수첩, 돈, 열쇠, 시계, 성냥, 필통들이 들어 있었다. 그 조끼는 토드를 살맛나게 하는 것이었고 창조물의 왕인 많은 주머니를 가진 동물과 주머니가 한 개 밖에 없거나 주머니가 아예 없는 열등한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인생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에 갖추어지지 않고도 자유분방하게 뛰어 다니고 돌아다닐 수 있었다. (87)

유용한 주머니와 그 안에 든 내용물이 없는 이러한 채비는 분명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의 신분과 걸맞게 일시적인 좌천을 강화한다. 부유하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존재의 장치는 남성임 (masculinity)의 장치와 일치한다. “이것이 진짜 신사의 생활”(“This is the real life for a gentleman!” 17)이라고 말하는 토드에게서 하층민을 바라보는 상층민의 시각으로 존재로서의 차이를 드러낸다. “Gentleman”이 지니는 함의는 먼저 매너를 가지고 있는 신사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Gentry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계급을 나타내주는 용어로도 쓰인다. 한 편으로 남성이고, 부유하며 강력한 존재로서 토드와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이고, 가난하며 무력한 존재로서 여성 세탁부이다. 토드와 독자가 직면한 초자연적인 것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함축과 더불어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이다.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이라는 밀레트의 저서에 의하면, “성의 정치는 기질 역할 지위에 관하여 양성을 기본적인 부권제의 정치 형태로 “사회화”시킴으로써 합의를 얻는다. 지위(status)에 관하여는 남성 우위성의 편견이 보편화되어 있는 합의가 남성에게는 우월한 지위를, 여성에게는 열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정의숙 54, 재인용). 교도관의 딸이 토드를 감옥으로부터 탈출시키고자 계획했을 때 그녀가 토드에게 건넨 말은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당신은 대단한 부자일 거예요. 그리고 숙모님은 무척 가난해요. 몇 파운드쯤이야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숙모님한테는 아주 큰 돈이지요”(86). 일과 돈은 자유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성은 그것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남성들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밖으로 향하는 모험 이야기나 요정담과는 달리, 여성은 그들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기를 희망할 뿐이다. 또는 여성에게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운다.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덫에 빠뜨리기(entrapment)가 영문학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버드나무』에서 구현된 여성상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남성간 유대(male bonding)

자연세계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생활을 보여주는 『버드나무』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제공하는 심미적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적인 공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우정과 동지애로 충만한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작품으로 읽혀지곤 한다. 여성을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그레이엄의 전원적 세상은 남성과 여성의 공존이 아니라 남성간의 유대(male bonding)라는 이상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세상이다. “『버드나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교도관의 딸과 토드의 경우만 제외하고 남자들 사이의 관계이다”(Kuznets 177). 등장인물들 사이에는 성적인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래트, 모울, 토드 그리고 배저는 남성의 특질뿐만 아니라 여성의 특질도 나타낸다”(Kuznets 176)는 점이다. 그들은 서로 음식을 먹이고 양육, 부양하며 안락한 가정생활을 조성한다. 남성들은 서로 환대를 제공함으로써 양육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성적 관심의 가능성에 대한 소재는 절대로 언급되지 않고 암시조차 되지 않는다.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이성애적 남성(heterosexual male)을 추동하는 주요 동력은 다른 남성에 대한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욕망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를 거래하는 일은 서로간의 유대감을 발전시키고 위계질서를 세우는 수단으로 중요하다. 레비 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가 “여성을 두고 벌이는 남성의 거래”(the male traffic in woman)라고 부르는 이것은 “남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 교환 가능한 소재로 여자를 사용하는 일”(Sedgwick 13, 재인용)에 다름 아니다. 이런 가

치관에 기초한 수많은 문학 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 세지웁인 고안해낸 개념이 바로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male homosocial desire)”이다.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은 『버드나무』에 드러나는 남성유대를 이해하는 핵심 줄거리를 제공한다.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의 문제점은 젠더 불균형에 있다. 친족 제도를 근간으로 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성애는 규범적 욕망으로 인정받고 동성애는 구조적으로 배척된다. 그러나 남성들 간의 관계는 이성애와 동성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프로이트(Freud)에 의하면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아버지와 적대적 대립관계에 있는 아들은 적수인 아버지를 모방, 동일시한다. 유사하게 하나의 여성을 놓고 경쟁하는 두 남성 경쟁 사이도 대립과 모방, 동일시로 이어진 관계이다. 르네 지라르(Rene Girard)는 주요 유럽 문학 작품의 읽기를 통해 욕욕적인 삼각구도의 두 남성 사이의 경쟁 관계에 의해 구성된 권력의 미적분학을 밝혀낸다. 유럽의 높은 문화의 남성 중심 문학 작품 안에서 지라르가 알아낸 삼각구도는 두 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위해 경쟁 관계에 있을 때이다. 그런 경쟁구도의 이면은 바로 남성 사이에 연대감이다. 세지웁은 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두 남성이 경쟁하는 유형으로 나타나는 삼각구도를 분석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삼각구도가 실제로는 남성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매력을 적대감으로 위장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지라르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 삼각구도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남성의 동성사회적 관계가 성적 요소를 지닐 수도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성을 남성들을 매개하는 중간항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

제인 남자와의 관계를, 첫째로 여자를 다른 남자와 교환하는 일을 통해서, 둘째로 그들의 욕망이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사회적인 것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발견한다.

세지윅과 같은 페미니스트 비평가의 시각에서 볼 때, 지라르의 페러다임은 삼각연애의 불안정한 구조 속에 내재한 대등한 경쟁 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은연중 불균등한 젠더 역학 관계를 노출시킨다.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급진적 결별 혹은 대립을 강조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달리, 지라르의 페러다임은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는 남성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방의 욕망의 구조를 설명해줌으로써 “남성들 사이”의 동지애나 동성애에도 젠더의 모든 문제점들이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Sedgwick 21-4). 서구 문화에서 남성간의 우정은 매우 고귀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성과 여성간의 우정은 무시됨으로써 여성간의 관계는 주목받지 못한다. 동성사회적 우정(homosocial friendship)과 이성애적 사랑(heterosexual love)은 언제나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남성 집단은 함께 살아가지만 종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남성 집단에 충성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서, 서로 친구이며 떨어질 수 없는 동료라는 이념이 우선권을 갖는다. 사랑의 라이벌이 될 때 우정은 위협에 빠진다.

『버드나무』에서는 자신의 재산(property)보다도 우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남성간 친구 이데올로기가 내러티브의 주요 동력이다. 『버드나무』의 도입부에서 지하 생활에 길들여진 삶의 방식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모울의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이다. “그는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궁과 같은(womblike) 집에서 [세상으로] 불러내어졌다”(Guroian 93). 땅속으로부터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모울을 불러올리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남성의 우정인 셈이다.

The Mole had been working very hard all the morning, spring-cleaning his little home. ... Something up above was *calling* him imperiously, and he made for the steep little tunnel which answered in his case to the gravelled carriage-drive owned by animals whose residences are nearer to the sun and air.

모울은 봄을 맞아 집 안을 대청소하느라 아침 내내 바빴다. ...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급하게 모울을 불러내고 있었다. 모울은 가파르고 좁은 터널로 다가갔다. 모울에게는 그 터널이 땅 위 마을의 동물들이 이용하는 밤자갈 깔린 마차길이나 다름없었다. (1; 강조는 본인의 것)

봄을 맞이한 모울은 자신의 집을 청소하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부풀어 오른다. 그곳은 새롭고 흥분시키는 냄새와 소리 그리고 구경거리로 가득 채워진 세계이다. 그 세계로의 열망은 마치 고양이와 초월적인 어떤 존재들(즉, 남성들)과의 교제에 대한 부름처럼 들린다. 『버드나무』에서 모울과 래트는 이 부름을 듣는다. 질리드는 “바다를 향한 래트의 충동과 굴에서 리버 뱅크까지 모울의 출현 사이에 유사점 있다”(154)고 지적한 바 있는데, 두 인물의 열망에는 공통적으로 우정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두 명의 충동은 계절의 부름(봄의 소생과

가을의 이주)에 상응한다는 점 역시 주목을 요한다. 모울과 그의 새로운 친구의 성장은 한층 고양된 부름의 경험으로 묘사되는데 이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작품의 도입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는 모울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놓을 경험, 즉 자신을 성숙한 공동체의 일부로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하 생활은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땅 위로 나온 모울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한다. 아늑한 땅속 세상을 벗어난 그는 “해방된”(emancipated) 감정을 느낀다. 지하 세계로부터 햇빛과 신선한 공기, 새로운 경험이 펼쳐진 곳으로 나오자 모울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 본능적으로 그는 친구들만이 이러한 욕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세상을 향해 출발한 모울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모험을 떠날 친구 래트를 만난다. 모울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이곳이 강이라는 데로구나!”(5). 강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래트는 강에 대해 자신의 아는 모든 것을 모울에게 전수한다. 커즈넛이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물/강은 “원형적으로 여성, 모성”과 주로 연관되지만 이 작품에서 강은 아버지/남성/우정의 주제를 구성하는 근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Kuznets 103). 따라서 모울이 강변에서의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삶과 경험에 대한 대가는 우정이다.

“Mole's going to stick to me and do as I do, aren't you, Mole?”
“Of course I am,” said the Mole loyally. “I'll always stick to you, Rat, and what you say is to be – has got to be. All the

same, it sounds as if it might have been – well, rather fun, you know!”

“모울은 나를 따라서 늘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니, 모울?”

“물론이지” 모울은 충성스럽게 대답했다.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래트,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돼야 해. 그렇지만, 조금은 재미있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아?” (16)

지하세계에만 익숙하던 모울은 래트의 인도에 따라 배를 타고 한가로이 강 위를 떠돌아다니는 기쁨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비록 모울이 시를 쓰는 래트의 취미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우정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모울은 더 많은 호기심이 생긴다. 래트가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동물들이 거주하고 있는 와일드 우드를 좀 더 탐험하고 싶은 열망이 자라난 것이다. 모울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할수록, 그의 지적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친구가 절실해진다. 모울과 래트의 우정은 모울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견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역시 우정의 중요한 주춧돌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Dulce Domum”장에 나오는 장면은 흥미롭다. 낮선 시골길을 지나가던 모울이 그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 가깝다는 것을 감지하고서 잠시 들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래트는 모울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눈보라 속에 발걸음을 더욱 재촉한다.

But even under such a test as this his loyalty to his friend stood firm. Never for a moment did he[Mole] dream of abandoning him[Rat].

하지만 모울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친구에 대한 충정을 굳게 지켰다. 모울은 단 한 순간도 우정을 저버리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49)

의존적인 어린이에서 건강하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진정한 덕을 갖춘 친구는 모든 친구들의 도덕적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리버 뱅크에 사는 래트는 동지애(**comradeship**)와 우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다.

모울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곳 못지않게 삶을 함께 헤쳐 나갈 조력자가 필요하다.

배저와 래트는 성숙하고 아버지 같은 인물이다. 그들만의 세계의 방식에서 시작한 그들은 와일드 우드를 잘 다룰 수 있는 리버 뱅크의 내부 사람이다. 그들은 보호자, 구조대원, 선생님 그리고 토드와 모울의 지도자이다. 토드와 모울은 어린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충분한 경험이 없는 외부인, 학습자 그리고 탐구자이다. (Garden 88)

Badger and Rat are mature, paternal characters. Initiated in their world's ways, they are insiders of River Bank society who can manage the Wild Wood; they are protectors, rescuers, teachers, and directors of Toad and Mole. Toad and Mole are child figures, uninitiated outsiders, the learners and seekers of the book.

“와일드 우드의 한가운데서 사는”(21) 배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중요한 사람 같았다. 비록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주변의 모든 동물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23). 그는 다른 동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삼고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토드와 모울은 어린이와 같은 인물이다. 그들은 충분한 경험이 없는 외부 사람이고 학습자이며 탐구자이다. 모울은 리버 뱅크에 푹내기이고 토드는 웅장한 집과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물려받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배저는 아버지이다. 그는 덩치가 크고 때론 통명스럽고 권위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토드 아버지의 미명 하에 토드를 꾸짖는다(132). 그리고 어린 고슴도치가 눈 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래트와 모울도 눈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배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배저의 집은 편안함과 만족감 속에서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전과 평온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구제의 패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린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된 보살핌과 안전한 장소로서 집에 대한 강조와 연관된다(Mendelson 132).

“It's me, Rat, and my friend Mole, and we've lost our way in the snow.”

“This is not the sort of night for small animals to be out,” he said *paternally*.

“저예요. 래트. 내 친구 모올이랑 같이 있어요. 우린 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 곳은 오늘 같은 밤에 너희들처럼 작은 동물들이 밖에 있으면 안돼.” 그는 *아버지처럼* 말했다. (34; 강조는 본인의 것)

배저는 최후의 구조자이기도 하는 아버지같은 존재이다. 사람들은 곤란한 일이 생길 때면 모두들 배저에게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배저는 무슨 일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39). 배저는 주요 등장인물 중에 혼자만이 격렬한 감정에 의해 사로잡히지도 않고 집을 떠날 유혹에 현혹되지도 않는다. 효과적인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조연자-피조연자 사이와 같은 관계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아니면서 애정과 배려를 제공하는 배저나 래트처럼, 어린아이에게는 미숙한 책임으로부터 의도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연자가 필요하다. 조연자는 어린이에게 자기 인식에 이르게 하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방향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책임과 자신감을 서서히 가르친다.

래트의 우정은 모올의 지식 성장에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했건 아니건, 『버드나무』는 우정이 구속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정한 순간을 넘어서면 그들의 우정 관계는 모울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묶임(binding)은 모울이 배저의 첫 부관(lieutenant)이 되는 결말에 이르러서 풀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래트의 동료 의식은 개인적 욕망의 억압을 의미한다”(Gilead 154)는 지적은 바로 이런 점에서 유효하다. 어린이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좋은 조언자가 필요하지만, 그 조언은 삶의 어떤 단계에 이르면 벗어나야 할 구속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안내자(moral guide)는 역설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보호자격인 배저는 다른 동물들에게 무조건 사회의 규범에 따르라고 요구한다. 배저와 토드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 속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세대간 갈등의 문제를 전면 배치한다. 예를 들어 겨울잠에서 깨어난 배저는 죽은 친구의 아들인 토드가 자동차에 뒹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몹시 걱정한다. 또한 배저는 토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래트와 모울에게 명령한다. 따라서 그들은 토드를 지각 있는 동물로 만들기 위해 그의 방에 가두는 작업에 착수한다.

조언자의 우정이 억압으로 퇴보하는 순간은 예컨대 모울이 자유를 찾아 탈주한 후에 곧바로 일어난다. 배를 저어 강을 내려가고 있던 동안 모울은 와일드 우드에 관해 질문한다.

“And beyond the Wide Wood again?” he asked: “Where it's all blue and dim, and one sees what may be hills or perhaps they mayn't, and something like the smoke of towns, or is it only

cloud-drift?”

“Beyond the Wide Wood comes the Wide World.” said the Rat.
“And that's something that doesn't matter, either to you or me. I've never been there, and I'm never going, nor you either, if you've got any sense at all. Don't ever refer to it again, please.”

“그리고 와일드 우드 너머에는 뭐가 있어? 온통 푸르스름하고 어둑어둑한 언덕 비슷한 게 보이는데. 굴뚝 연기 같은 것도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인가?”

“와일드 우드 너머에는 와일드 월드가 있어. 너나 나 같은 동물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지. 난 거길 가 본 적도 없고 가지도 않을 거야. 생각이 있는 동물이라면 너도 그렇게 해야 해. 그 애긴 더 이상 하지 말자.” (6)

그레이엄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싫어하고 모험을 좋아하는”(16) 래트의 마음씨 고운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래트의 우정이 친구의 새로운 모험(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 역시 자명해 보인다. 리버 뱅크에서의 익숙한 우정의 세계를 벗어나 남성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여성들이 존재하는 와일드 월드로 가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리버 뱅크가 안전하고 중산 계급의 보수주의로 가득 찬 반면에 머지않은 곳에 와일드 우드가 있다. 그 곳은 도시 노동자 계급의 혁명의 근원지이다. 와일드 우드에서 살아온 족제비들은 사회의 하층민을 대표하는데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토대로 부를 축적한 토드가 잠시 집을 비운사이를 틈타 토드

홀(Toad Hall)을 전복하기에 이른다. 또한 언덕 넘어서 래트가 모울에게 열렬히 가지 말라고 한 “와일드 우드 너머에 와일드 월드”(6)가 있다.

등장인물을 고찰해봄으로써 햇볕이 잘 드는 지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은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이다. 『버드나무』는 두 명의 불안한 요소인 모울과 토드의 “표준화”(normalization)를 현상 유지의 세계 속으로 다룬다. 텍스트는 토드의 훌륭한 친구들에 의해 영향 받은 현상 유지와 토드의 의심스러운 변화와 더불어 축제의 의식으로 끝을 맺는다. 젊은이를 대변하는 모울과 토드의 완강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성향이 짙은 인물인 래트와 배저는 지배력을 행사한다. 요컨대, 지배 질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모울에 의해 재현된 중하류 계급은 흡수되고 토드에 의해 재현된 벼락부자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와일드 우드의 노동자 계급은 본래 상태의 신분으로 되돌려 놓는다. 질리드에 따르면, 매우 정교한 플롯과 카운터플롯(counterplot)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두 개의 서로 겹쳐진 내러티브--모울과 토드의 이야기--에 구성된 『버드나무』이다. 두 개의 플롯 사이에 교대(alternation)의 패턴은 확실한 경쟁을 내포한다. 첫 번째로, 모울/래트의 내러티브는 목가적 전원문학의 버전이다. 두 번째로, 토드의 모험은 계층 차이, 돈, 현대적 기술, 풍자적이고 정치적인 알레고리를 통해 사회적 비판, 명백한 도덕적 드라마와 교훈주의 이 모두를 극 속에서 이용하는 좀 더 사회화된 내러티브 관점에서 일어난다(Gilead 148).

역설적인 것은 와일드 월드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래트야말로 이 작품에서 가장 어머니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동물 여성이 삭제되고 배제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는 래트의 우정이 있다는 사실이다. 래

트가 모울과의 우정 속에서 구현하는 조연자-친구의 역할은 가정에서라면 어머니가 의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모울과 토드가 강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을 발견한 래트가 배저와 더불어 그들을 구한다는 사실은 이 남성들만의 세계가 남녀로 구성된 가정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래트는 와일드 우드에서 고생하는 모울을 발견하고, 모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수영하는 법, 노 젓는 법 등을 가르쳐 준다. 아버지와 같은 배저와 전형적인 어머니와 같은 래트는 모울과 토드의 성장을 도와주고 안내하는 조력자인 셈이다.

착한 어린이인 모울은 토드의 변덕스러운 이력과 반대되게 끊임없는 성장을 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난다. 텍스트의 초반에 그는 육체적 구조와 감정의 유지를 위해 래트에게 의지한다. 다음 몇 장에서 모울은 덜 의존적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모울은 토드 홀을 점령한 불미스러운 족제비를 추방하는 의기양양한 공격을 추진하는 주도권을 잡는다. 전환점은 모울이 래트가 낚이 나간 것을 인식하고선 그의 친구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데 공격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Wayfarer All”장에서 일어난다. 그 후로부터 동물들이 토드 홀의 탈환에 착수했을 때 래트보다는 배저의 지도 하에 있다. 모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을 능가한다. 수영과 노 젓는 법을 배우고 “기나긴 여름밤이면 친구들과 와일드 우드를 함께 산책하는 데”(149) 필요한 능력과 자신감을 얻는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의 발달과 평행한다. 어린이는 처음에 “어머니”로부터 가족 안에서의 자기 돌봄과 협동의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그 다음에 어린이가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배워야만 하는 “아버지”의 영역인 바깥세상

으로 나아간다.

토드 홀의 탈환은 이와 같은 가족의 심리적인 역학을 잘 설명해준다. 모울과 배저가 적의 소재지를 정찰하는 동안 래트는 토드를 강에서 끌어올리고 먹을 것을 주고 물기를 닦아주고 옷을 입히며 꾸짖기도 한다. 무장하고 있는 동안에 래트의 야단법석은 배저의 침착한 무관심과 대조를 이루어 익살맞은 어머니와 같다. 그레이엄은 “4명의 영웅들”을 칭송하고 기념하기 위해 가족이라는 일종의 은유를 제시한다.

The mother-weasels would bring their young ones to the mouths of their holes, and say, pointing, “Look, baby! There goes the great Mr Toad! And that's the gallant Water Rat, a terrible fighter, walking along o' him! And yonder comes the famous Mr Mole, of whom you so often have heard your father tell!” But when their infants were fractious and quite beyond control, they would quiet them by telling them how, if they didn't hush them and not fret them, the terrible grey Badger would up and get them.

엄마족제비들은 아기족제비들을 굴 입구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애, 저기 훌륭한 미스터 토드가 가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저 분이 씩씩한 워터 래트씨인데, 무적의 용사란다! 저기 유명한 모울씨도 오시네. 너희 아빠가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야!” 아이들이 떼를 쓰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도무지 입을 다물지

않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때에는 무서운 배저 아저씨가 와서 잡아갈 거라고만 하면 금세 잠잠해졌다. (149-50)

죽제비와 함께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평범한” 가족생활이 그려진다.

그러나 표면상 사회 통합적인 것처럼 그려진 『버드나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는 의도가 엿보인다. 래트, 모울, 토드 그리고 배저를 통해 우정의 소중함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 혹은 동심을 지닌 어린이 같은 독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종종 구속력을 지니고 독재적이기도 하다. 그레이엄의 판타지 속에서 감정적 연대감은 순전히 남성들 사이에서이며, 이러한 유대는 위계질서에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3. 자연

우리의 체험을 이항 대립구조로 나누는 것이 여자를 억누르기 위한 남자들의 사고 버릇이라고 믿고 있는 이론가들이 있다(강희원 195). 일단 이런 범주를 만들고 항목들을 서로 고정해 놓으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우위에 있다고 보게 되기 마련이다. 대립적인 성질로 이루어진 모든 체험들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둘 중 하나가 명백히 더 바람직하다고 추정하는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예를 들어, 서구, 백인, 남성은 동양, 유색인, 여성에 대해 이항대립적 우월함을 갖는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의 틀 속에서 동물, 자연, 여성 그리고 어린이는 각각 인간, 문명, 남성,

그리고 어른의 이항대립적 열등함을 대표하며 이들은 주변화되고 소외되기 마련인 것이다. 인간중심적인 사고(anthropocentrism)의 틀 속에서 동물은 상대화되고 타자화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어린이는 성인 남성에 의해 주변화되고, 배제되며 대상화 되어온 존재이다. 흔히 문명은 남성을, 자연은 여성으로 비유된다. 자연은 인간에 의하여 문명화되는데 이는 인간에 의해 자연을 제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레이엄이 자연을 숭배하고 목가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지만 그가 만들어낸 주인공들은 자연에 의해 위협을 당한다. 자연은 지배 계급의 남성들로 구성된 그들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여성주의자들이 성 정체성에 관한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성차별의 근거를 발견하고 극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 또 의미와 가치들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질서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여성 주의적으로 어린이 문학을 바라보는 일이 가능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후기 빅토리아 시대와 에드워드 시대로부터 어린이에 대한 책의 최근 비평에서 자연의 재현을 논의할 때 판타지와 리얼리즘 사이에 길항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전원풍의 생활을 향유하는 어린이나 혹은 어린이다운 인물을 묘사함으로써 아동기를 이상화하고 낭만화하는 후기 빅토리아 시기 아동소설의 일반적인 경향은 두 장르의 양상을 고루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원풍의 판타지는 복잡한 산업화를 경험한 도시적 공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기에 흔히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사회적 “진실”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시대

아동문학 작가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겪은 부당함이나 불행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사실과 아동문학의 판타지적 특성을 연관시키는 평자도 있다. 험프리 카펜터(Humphrey Carpenter)는 예컨대 그레이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동기를 다시 방문하기를 희망했다. 그것은 도피를 제공하는 가능성 때문이다”(120). 그레이엄이 탈출하기 원했던 것은 그의 아내인 엘스 피스로부터였다. 시인이었던 그의 아내는 그레이엄의 냉담함과 무시에 대한 분노를 마구 퍼부었다. 자신의 아내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태도와 『버드나무』 속의 여성관을 연관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연(Nature)이라는 개념이 『버드나무』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자연이 종종 어른들에 의해 잃어버린 아동기의 이상화된 투영이자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도피라는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모울은 봄 청소로부터 해방되어 빛의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리버 뱅크의 목적이 없고 쾌락주의적인(epicurean) 삶에 빠르게 빠져든다. 전원적인 여유로운 유혹의 생활은 흥분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위협과 두려움이 곳곳에 산재한 것이기도 하다. 자연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자연의 불길하고 위협적인 측면이 언제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모울에게는 너무나 낯선 세계, 그가 알지 못하는 자연 세계는 모험의 짜릿함과 더불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신세계이기도 하다. 이 공포스러운 신세계는 쾌락과 위협이 공존하는 세계이다.

There was nothing to alarm him at first entry. Twigs crackled under his feet, logs tripped him, funguses on stumps resembled caricatures, and startled him for the moment by their likeness to something familiar and far away; but that was all fun and exciting. It led him on, and he penetrated to where the light was less, and trees crouched nearer and nearer, and holes made ugly mouths at him on either side.

숲 입구에 들어섰을 때, 모울을 놀라게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작은 가지들이 발밑에 부서져 있었고 통나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나무등걸에서 자라고 있는 버섯들은 만화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었다. 모울은 그 버섯들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해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다. 모울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길까지 뚫고 들어갔다. 나무들은 점점 더 뻑뻑해졌고 동굴들이 양쪽에서 모울을 향해 입을 썉 벌리고 있었다. (25)

와일드 우드는 “짙고, 위협적이고, 뻑뻑한 숲이 광대하고 하얀 들판에 불길하게 둘러싸인”(“the whole mass of the Wild Wood, dense, menacing, compact, grimly set in vast white surroundings” 45) 곳이며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곳이다. 보브와르(Beauvoir)를 해설하는 이정순의 논의는 이런 양가적 태도를 설명하는데 적절해 보인다.

주체인 남자에게 여자가 다양한 의미로 존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여자가 타자이기 때문이었다고 보브와르는 설명한다. 남자들은 여자 속에 자연이 구현되어 있다고 믿었다. 남자가 보기에 여자는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힘이 돌발하는 곳이었으며 그로부터 여자에 대해 존경심과 공포심이 뒤섞인 감정, 두려움과 혐오의 감정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마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여자가 표적이 되는 금기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보브와르는 주장한다. (이정순 61).

모울이 와일드 우드에서 (그리고 와일드 우드에 대해서) 경험하는 바가 바로 자연-여성에 대한 ‘뒤섞인 감정’의 전형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생태 페미니즘(ecofeminism)은 자연 생태계와 여성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여성이 생산과 양육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점에서 자연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존경심과 공포심의 뒤섞인 감정을 준다면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It was over his shoulder, and indistinctly, that he first thought he saw a face: a little evil wedge-shaped face, looking out at him from a hole. When he turned and confronted it, the thing had vanished.

어깨 너머로 무언가가 느껴졌다. 모울은 처음엔 그것이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썩어 모양을 한 작고 사악한 얼굴이 동굴 속에서 모울을

쳐다보고 있었다. 모울이 돌아서서 똑바로 쳐다보자 그것은 곧 사라졌다. (26)

자연에 대한 이와 같은 양가적 묘사는 작품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The Piper at the Gates of Dawn”장에서 목신조차도 “다정한 눈과 희미한 미소”(“kindly eyes and the half-smile”)를 상쇄하기 위해서 “뿔과 무서운 매부리 코”(“with his horns and the stern, hooked nose” 76)를 가진 자연의 인정이 넘치지만 두려운 측면이 뒤섞여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동문학 텍스트에서 자연이 두려운 존재라는 생각과 남성 중심적 사고 사이의 친연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토드가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여 기차에서 숲으로 뛰어 내릴 때에 그가 자연을 향해 느낀 것 역시 모울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But he soon stopped laughing when he come to consider that it was now very late and dark and cold, and he was in an unknown wood, with no money and no chance of supper, and still far from friends and home; and the dead silence of every-thing, after the roar and rattle of the train, was something of a shock.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은 데에다가 날이 어둡고 춥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이내 웃음을 그쳤다. 이 곳은 낯선 숲이었고 돈도 한 푼 없고

아직 저녁도 먹지 못했다. 게다가 아직도 친구들과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기차가 굉음을 내며 덜컹덜컹 지나가고 사방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지자 가슴이 내려앉았다. (92)

자연에 대한 모울과 토드의 두려움은 거세 공포증(Castration fear)과 상관이 있다. 그들은 남근이 초월적 기의로 작용하는 상징계에 속해있는 존재로서 어머니의 세계인 기호적 코라(The Semiotic Chora)의 세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거세 공포증에 시달리게 된다. 남성으로 대표되는 모울이 여성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시어의 혁명』(*Le Revolution du Language Poetique*)에서 상상계 대신에 “기호적”이라고 명칭한 단계를 상징계에 대립시킨다. 기호적 코라는 자연, 리듬, 멜로디, 육체적 움직임 등의 특징을 띠며 모순, 비합리성, 혼란, 침묵, 부재 등의 특성도 띠고 있다. 와일드 우드로의 모험은 “야성”에 대한 동경, 남성의 실용주의적 목적에 맞도록 분해 되고 조작되고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에 대한 동경을 보여준다. 자연의 길들지 않은 혼란스럽고 위협적이며 파괴적인 측면을 두려워하면서도 이러한 잠재적 위험, 이 야성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이 동경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프로이트가 “문화(civilization)는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문화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곳은 곧 어머니의 공간이다. 남성들은 항상 이 공간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곳을 동경한다. 언어 습득과 더불어 상징계에 진입한 남자는 그들의 무의식 세계 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혼적으로만 남아있는 미지(비밀)의 공간을 경험하고자 갈망한다. 그렇지만 거세 공포증 때문에 일단 상징계에 진입한 남성은 어머니와 한 몸이 되는 기호적 코라와의 접촉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와일드 우드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모울에게 악의와 증오가 가득 담긴 눈초리를 보낸 얼굴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동시에 자연이 선한 것, 어머니, 친구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III. 결 론

아동 문학은 이제 서구 문학의 중요 장르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는 장르가 되었다. 그러나 문학으로서 아동 문학은 여성 문학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문학사 속에서 주변화되고 무시당해왔다. 여성작가가 주류가 되어 형성해온 아동문학의 역사는 따라서 여성문학의 역사와 더불어 살펴볼 때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 아동문학사에서 정전의 반열에 오른 남성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버드나무』는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에 대한 비평의 역사 역시 남성비평가들이 끊임없이 생산하는 남성 중심적이고 환원적인 해석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버드나무』 안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페미니스트 비평가 콘스턴스 스메들리(Constance Smedley)는 『버드나무』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양육과 조언을 하는 것으로 제시된 오로지 남성만의 이야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레이엄은 그의 삶 속에서 여성의 부재가 살아하기에 훨씬 편하다고 여기기라도 하는 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여성과 어머니가 사라져 버리는 가족사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작품 속에서 여성 재현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이상화된 자연 속에서 형성되는 남성간의 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버드나무』에서 네 명의 동물 - 모울, 래트, 토드, 배저 - 은 모두 미혼 남성으로 설정

되어 있으며, 그들 남성들 간의 관계가 핵심적인 인간관계로 제시된다. 여성과의 관계는 배제되거나 진지한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버드나무』에서 나타난 여성의 성은 기존의 서양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결핍 내지는 부재의 성 정치학(Sexual Politics)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성은 이야기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에 의해 잠시 언급되고 지나갈 뿐이다.

그레이엄의 텍스트에 드러나는 성 차별주의(sexism)는 토드 홀을 침입한 하층 계급의 족제비들에 대한 묘사에서 드러나는 엘리트주의(elitism)와도 연관된다. 토드 홀을 침입한 하층 계급 출신 동물에 대한 묘사에는 계급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아동문학과 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피터 홀린데일(Peter Hollindale)의 관점은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이데올로기의 책략에 의해 어린이 독자는 사실상 더 선호되어진 사회 목표와 일치하거나 양립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적 정서를 널리 퍼뜨리기를 바라는 시대에 어린이는 초기의 식민지화하는 개척자의 군인이 될 것이다. 성, 인종 그리고 계급 사이에 차이를 폐지하기를 바라는 시대에 독자는 기꺼이 성차별반대자, 인종차별반대자, 계급차별주의반대자가 되고 동등하게 되는 문학이 진보하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 인종, 계급에 속하지 않는 복합 어린이(Composite Child)이다. 어린이는 무성이지만 여성이고, 무색이지만 흑인이고 특정한 사회 계급에 속하지 않지만 프롤레타리아이다. 아동 문학은 함축적으로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존재로서 정의 내린다. (Hollindale 9)

어린 문학 속의 타자화 경향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이항대립의 축에서 한쪽을 타자화하는 서구형이상학의 역사의 일부이다. 샌드라 길만(Sandra Gilman)이 주장한 것처럼, “흑인을 비롯하여 타자로 구분되는 모든 것, 즉 반란, 혁명, 성적 적극성, 광기, 프롤레타리안, 백치, 아방가르드, 여성 심지어 어린이가 모두 이 타자의 범주에 들어간다”(34-7).

Work Cited

- 김서정. 『멋진 판타지』. 서울: 굴렁쇠, 2002.
- 노들먼, 페리.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 2』. 김서정 역. 서울: 시공주니어, 2001.
- 로버, 주디스. 『젠더 불평등: 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최은정 외 공역. 서울: 일신사, 2005.
- 린트호프, 레나. 『페미니즘 문학 이론』. 이란표 역. 서울: 인간사랑, 1998.
- 미스, 마리아. 시바, 반다나. 『에코 페미니즘』. 손덕수, 이난아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 밀레트, 케이트. 『성의 정치학 上, 下』. 정의숙, 조정호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76.
- 모리스, 팸. 『문학과 페미니즘』. 강희원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7.
- 셀던, 레이먼. 『현대 문학 이론』. 현대 문학 이론 연구회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 아리에스, 필립. 『아동의 탄생』. 문지영 역. 서울: 새물결, 2003.
- 윌리엄스, 레이먼드. 『문학과 문학 이론』. 박만준 역. 서울: 경문사, 2003.
- 지라르, 르네.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송의경 역. 서울: 한길사, 2001.
- 최기숙.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서울: 책세상, 2001.

- 타운젠드 존 로우. 『어린이 책의 역사 1, 2』. 강무홍 역. 서울: 시공사, 1996.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2001.
- 통, 로즈마리.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역.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서울: 민음사, 2000.
- 협, 메기. 『페미니즘 이론 사전』. 김정순, 엄경숙 역. 서울: 삼신각, 1995.
- Bingham, Jane M, ed. *Writers for Childre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8.
- Blount, Margaret. *Animal Land: The Creatures of Children's fiction*. New York: William morrow & Company, 1975.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 Carpenter, Humphrey. *Secret Gardens: A Study of the Golden Age of Children's Literature*. London: Allen and Unwin, 1985.
- Culler, Jonathan. *Literary The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P, 1997.
- Darcy, Jane. "The Representation of Nature in *The Wind in the Willows* and *The Secret garden*." *The Lion and the Unicorn* 19.2 (1995): 211-22.
- Dusinberre, Juliet. *Alice to the Lighthouse: Children's Books and Radical Experiments in Art*. London: MacMillan, 1987.

- Gaarden, Bonnie. "The Inner Family of *The Wind in the Willows*." *Children's Literature* 22 (1994): 43-57.
- Gilead, Sarah. "The Undoing of the Idyll in *The Wind in the Willows*." *Children's Literature* 16 (1988): 145-58.
- Gillin, Richard. "Romantic Echoes in the Willows." *Children's Literature* 16 (1988): 169-74.
- Gilman, Sandra. *Difference and Pathology: Stereotypes of Sexuality, Race and Madness*. Ithaca: Cornell UP, 1985.
- Green, Peter, ed. *The Wind in the Willows*. New York: Oxford UP, 1999.
- Guroian, Vigen. *Tending the Heart of Virtue: how classic stories awaken a child's mor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P, 1998.
- Haynes, Mary. "The Wind in the Willows: A Classic for Children?" *International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4.2 (1989): 115-29.
- Hollindale, Peter. *Ideology and the Children's Book*. Westminster College: The Thimble Press, 1988.
- Hunt, Peter. ed. *Children's Literature: The Development of Criticism*. London: Routledge, 1990.
- _____. *Criticism, Theory and Children's Literature*. Oxford UK & Cambridge USA: Blackwell, 1991.
- _____. "Dialogue and dialectic language and class in *The Wind in the Willows*." *Children's Literature* 16 (1988): 159-68.

- _____. *An Introduction to Children's Literature*. New York: Oxford UP, 1994.
- _____, ed. *Understanding Children's Litera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 _____. *The Wind in the Willows: A Fragmented Arcadia*. New York: Twayne Publishers, Inc., 1994.
- Kuznets, Lois R. *Grahame Kenneth*. Boston: Twayne, 1987.
- _____. "Kenneth Grahame and Father Nature, or Whither Blows *The Wind in the Willows*?" *Children's Literature* 16 (1988): 175-81.
- Marshall, Cynthia. "Bodies and Pleasures in *The Wind in the Willows*." *Children's Literature* 22 (1994): 58-69.
- Mendelson, Michael. "*The Wind in the Willows* and the Plotting of Contrast." *Children's Literature* 16 (1988): 127-43.
- Morgenstern, John. "Children and Other Talking Animals." *The Lion and the Unicorn* 24.1 (2000): 110-27.
- Ostry, Elaine. "Magical Growth and Moral Lessons; or, How the Conduct Book Informed Victorian and Edwardian Children's Fantasy." *The Lion and the Unicorn* 27 (2003): 27-56.
- Poss, Geraldine D. "An Epic in Arcadia: The Pastoral World of *The Wind in the Willows*." *Children's Literature* 4 (1975): 80-90.
- Rose, Jacqueline. *The Case of Peter Pan or: The Impossibility of*

- Children's Fiction*. London: MacMillan, 1984.
- Russell, David L. *Literature for Children: A Short Introduction*. New York: Longman, 1991.
- Sale, Roger. *Fairy tales and after: From Snow White to E. B. White*. Cambridge: Harvard UP, 1978.
- Sedgwick, Eve K [osofsky] .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P, 1985.
- Smedman, Sarah M. "Springs of hope: Recovery of Primordial Time in 'Mythic' Novels for Young Readers" *Children's Literature* 1 (1988): 91-107.
- Thacker, Deborah and Jean Webb. *Introducing Children's Literature: From Romanticism to 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 2002.
- _____. "Feminine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Children's Literature." *The Lion and the Unicorn* 25 (2001): 3-16.
- Walt, Thomas V. D. ed. *Change and Renewal in children's literature*. Westport: Praeger, 2004.

ABSTRACT

A Feminist Reading of *The Wind in the Willows*

Kim, Yoon Kyo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s how ideas of patriarchal ideology are portrayed and developed in *The Wind in the Willows*. The author Grahame creates four character animals and applies the literary genre of “fantasy” narration. Nineteenth-century England witnessed the abusive effects of civilization, which surface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n response, the English searched for a breakthrough that society was not able to provide. Hence, what the English could not find, they created within the literary

genre of “fantasy.” Fantasy not only served to provide an indirect means of exposing and criticizing social evil but also served to provide a means of escape from reality. Grahame's narrative fantasy yearns for escape because he earnestly desired to free himself from his wife, Elspeth Grahame.

Grahame's tragic childhood evolves around a motherless experience, which later leads to the portrayal of the absent mother and how women are described in his text. The author's unhappy marriage experience also reinforces his distorted view of motherhood and womanhood. For example, in the text, Toad's interaction with women is portrayed as very dangerous. He has to avoid the Wild World where women are more threatening than cars. In the text, although young Portly's mother, mother hedgehog, and mother weasel are of the female sex, these three are exempted from the group of dangerous women because they do not harm Toad. Toad has been tortured only by human women. In *The Wind in the Willows*, Grahame practices and emphasizes misogyny.

Grahame realizes how much easier life is without women; hence, he constructs familial circumstances by allowing the mother to dis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This is associated with the problem of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text. Grahame's text is inclined to be conservative in a number of ways. In the thesis, I object to both the misogyny and the elitism, which is depicted through the invasion of Toad Hall by the lower-class weasels.

